

# 황칠 문헌 기록 본초강목



**안식향**은 사람을 **편하게 하고**  
여러 종류의 역기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 
있어 안식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.

이를 향으로 피우면 **피로가 풀리고**  
남성에게는 **신장을 강화효과를,**  
여성에게는 **생리불순 해소 효과를** 나타내  
며, 갑작스런 심장병이나 어린이 복통,  
어린이가 놀랐을 때,  
관절통에도 효과가 있다.

# 황칠 문헌 기록 태평혜민화제국방 (진사문)

숙종 때에 안식향으로 지보단을 만들었는데  
이 약재는 열을 내리고 정신을 안정시키는

세 가지 보약인 온병삼보(溫病三寶 : 우황안  
궁환, 지보단, 자설단)에 들 정도입니다.

이 약재는 효과가 현저하고 약품이 귀중하  
여 지극한 보배로 불리게 되었는데

열을 내리고 독을 없애는데 사용되었고 안정  
제의 효과가 있으며

뜨거운 기운이 가슴에 들어가 답답한 경우,  
어린아이의 경기, 중풍, 더위 먹은데 효과가  
크다 하였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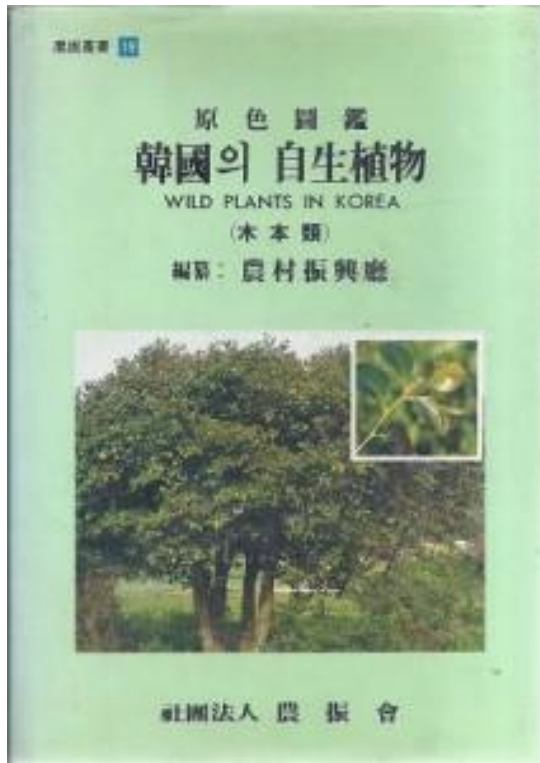
# 황칠 문헌 기록

## 중국 25 사와 영파사지 책부원구



진시황제가 불로초라 믿으며  
해동국에서 가져온 나무가  
바로 이 황칠나무이며  
통일 신라때 해상왕  
장보고의 교역 상품 중  
최상품이 황칠액이었다고 전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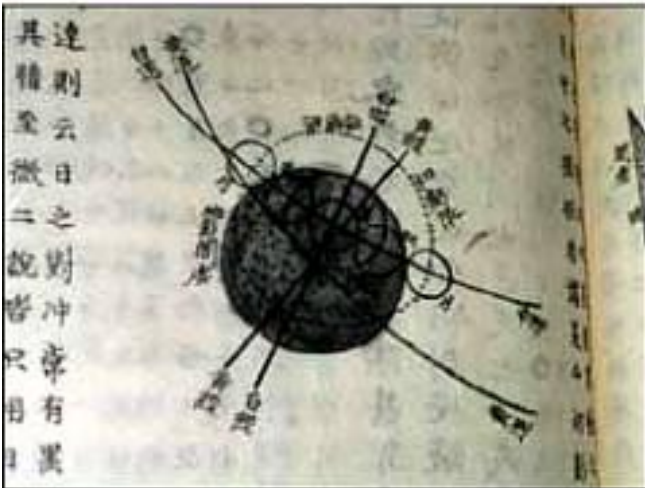
황칠 문헌 기록  
한국의 자생식물 (목본류 267p)  
-농촌진흥청 편찬



황칠 수액은

거 풍습(풍:신경마비, 습:신경통 제함) 및  
혈 활(혈액순환)에 도움이 된다.

# 황칠 문헌 기록 물 명 고 (순조때 유희)



“기름같이 맑은 것은 수안식향으로 삼고  
말려서 덩어리 된 것은 건안식향으로  
삼는다” 라고 하였다.

# 황실 문헌 기록 보제방



“치루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,  
또 안식향으로 만들 수 있는 약재가 무려 100여 가지가 넘게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”